

## 코로나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적응

김은영<sup>†</sup>

광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교수  
(2022년 11월 20일 접수: 2022년 12월 13일 수정: 12월 16일 채택)

## Academic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OVID-19

Eun-Young Kim<sup>†</sup>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Received November 20, 2022; Revised December 13, 2022; Accepted December 16, 2022)

**요약** :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 시 3개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업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r=-.584, p<.001$ ), 대인관계와 대학생활적응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505, p<.001$ )을 나타냈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64.462, p<.001$ ). 학업 스트레스( $\beta=-.542, p<.001$ ), 대인관계( $\beta=.339, p<.001$ ), 주거형태( $\beta=.199, p<.001$ )가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4.6%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학업 스트레스 감소와 긍정적이고 원활한 대인관계 향상, 정서적 지지 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대학생활적응

**Abstract** : This Research is a descriptive study conducted to identify the academic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degree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OVID-19,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aptation.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sophomore students enrolled in 3 university nursing departments in G city.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analyzed. The research result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 $r=-.584, p<.001$ )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eykim@gwangju.ac.kr)

\* This study i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Gwangju University in 2022

for academic stres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n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 $r=.505, p<.001$ )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The regression model to confirm the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life adaptation was shown to be significant ( $F=64.462, p<.001$ ). Academic stress ( $\beta=-.542, p<.001$ ),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beta=.339, p<.001$ ), and housing type ( $\beta=.199, p<.001$ )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ive factors.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54.6%. Throug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o reduce academic stress, improve positive and smoo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improve emotional support for college life adaptation.

*Keywords : Nursing student, Academic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 Adjustment to college lif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환경 주변과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 위한 준비과정의 필요하다. 고등학교와 달리 전공 분야의 지식습득과 함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능동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기로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학 주변 환경의 요구와 개인 요구 사이의 균형과 조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과 환경의 요구에 적절한 조율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 이 시기에는 다양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잘 적응하지 못한 경우에 정서적으로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간호사라는 직업 정체성은 대학생활적응의 중요한 요인[2]으로 간호대학생에서의 대학생활적응은 하나의 핵심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간호학과는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 특성상 간호대학생은 평상시에도 학업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느끼고 있으며[3], 병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학업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5,6],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7].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불안감, 우울 등을 초래하게 되며[8], 지속하게 되면 부정적 대인관계 형성으로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는 곧 부정적인 대인관계로 이어지게 되며[9], 결국 대인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0].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대학생활에 적응하여 성취 및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들어 1년 미만 신규간호사의 사직 이유가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보고되고 있는데[11], 향후 간호대학생들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간호대상자와 보호자를 대면하며 간호요구를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직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12]. 그러므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육기관의 모든 학습은 비대면 수업으로 일반화되어[13] 운영해왔다. 이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교수자의 지지[14]와 교수-학생의 긍정적인 상호작용[15]은 비대면수업방식으로 교수-학생의 상호작용 제한과 함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과 학생 간의 교육격차를 보였다. 또한 비슷한 연령대로 코로나19를 경험한 19세 이상 성인에서 20대의 자살 생각률이 무려 22.5%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리적 지지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16] 코로나19를 경험한 20대 초반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6], 대인관계와 의사소통[17], 우울[18]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고된 바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는 큰 맥락에서 본다면 학업 스트레스이며, 대인관계는 우울과 관련성이 높은 것 [19]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

적인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코로나19를 경험한 저학년의 대학생에게 대면으로 시작된 대학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저학년으로 임상실습시작 전에 긍정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육을 진행하여 역량을 높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좀 더 나아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실습환경에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확인 관련성을 파악하여 코로나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감소와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3개의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2학년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 취지, 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효과크기는 .15, 검정력은 .95, 유의수준은 .05, 예측변인은 7개(일반적 특성 4개, 연구변인 3개)로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153개로 확인되었으며, 탈락율과 회수율을 고려하여 설문 대상자를 170명으로 하였다. 응답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을 보인 11부를 제외한 후 159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서면 및 구두로 설명한 후 허락을 득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연구 시작에 앞서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자료의 익명성 보장과 인원 보호 등 비밀보장에 관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한 후 언제라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렸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서명한 대상자에게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설문응답에 대한 보답으로 소정의 선물로 편의점 쿠폰을 제공하였다.

### 2.2. 연구도구

#### 2.2.1. 학업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Oh와 Chun[20]의 학업 스트레스 척도(Academic Stress Scale; AS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하위영역이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성적·시험·수업·공부·진로 스트레스이다, 총 38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 2.2.2. 대인관계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Schlein, Guerny 그리고 Stover가 개발한 대인관계 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Moon[21]이 번역하고 Cheon[22]이 수정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7개의 하위요인인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불만족 하는 편이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 2.2.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Baker & Siryk[23]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Lee[24]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총 2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뜻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22.0을 이용하여 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적응의 수준은 기술통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대학생활적응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통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 3.1.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

본 연구에서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학업 스트레스의 평균은 2.34점(SD=.38), 대인관계의 평균은 3.95점(SD=.53), 대학생활적응의 평균은 3.65점(SD=.44)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평균은 5점 만점에 2.34점으로 Oh[25]의 2.21점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Oh[25]의 연구는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정확하게 높다 낮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살펴본 Yang[27]의 연구결과 학업 스트레스 평균은 5점 만점에 3.00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대상자의 대인관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95점으로 Oh[25]의 3.50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Lee[26]의 3.60점 보다도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선행연구들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Yang[27]의 연구 대상자는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점, Oh[25]와 Lee[26] 연구 대상자는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차이가 있어 임상실습과 이론수업을 병행하는 학과의 특성이 반영된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정확한 비교 고찰을 위해 추후 학년별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 정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65점으로 Yoo[28]의 3.24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선행연구 결과[26,28]에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대학생활적응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를 토대로 해석한다면, 대학생활적응에 학년에 따라 외생변인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대학 내 학업과 연계된 다양한 생활과 대인관계 등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면서 적절한 스트레스를 조절해야 하는 등 복잡한 환경에서의 적응이므로 좀 더 확장된 외생변인들 분석하는 추후 요구된다.

###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정도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의 정도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는 친한 친구 수와 동거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표 2와 같다. 사후 검정(Scheffé test) 결과, 친한 친구 수는 3명 이하의 친구보다는 5명 이상의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주거형태에서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를 경험한 간호대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N=159)

Variables	Subscales	M±SD
Academic Stress		2.34±.38
Interpersonal relations		3.95±.53
Adjustment to college life		3.65±.44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59)

Characteristics	구분	n(%)	Career identity	
			Mean ± SD	t / F (p) Scheffé
Age			20.56 ± 1.35	
Sex	Female	116(73.0)	3.66 ± .45	-.778
	Male	43(27.0)	3.60 ± .40	(.438)
Friendly number	≤ 3 <sup>a</sup>	21(13.2)	3.40 ± .44	7.760
	4 <sup>b</sup>	21(13.2)	3.45 ± .40	(.001)
	≥ 5 <sup>c</sup>	117(73.6)	3.72 ± .42	a < c
Residence type	Live with parents <sup>a</sup>	50(31.4)	3.76 ± .47	4.679
	living with relatives <sup>b</sup>	23(14.5)	3.63 ± .44	
	Dormitory <sup>c</sup>	27(17.0)	3.38 ± .36	(.004)
	Self-cooking <sup>d</sup>	59(37.1)	3.66 ± .40	

Table 3. Correlation among Measurement Variables

(N=186)

Variables	1 r(p)	2 r(p)	3 r(p)	4 r(p)
Adjustment to college life	1			
Academic Stress	-.584(<.001)	1		
Interpersonal relations	.505(<.001)	-.156(.049)	1	
Age	.126(.113)	-.188(.017)	-.107(.180)	1

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정도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친한 친구의 수와 주거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부분이다.

### 3.3.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학생활적응과 학업 스트레스( $r = -.584, p < .001$ )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대학생활적응과 대인관계( $r = .505, p < .001$ )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r = -.156, p = .049$ )는 부적상관을 보였고, 학업 스트레스와 연령( $r = -.188, p = .017$ )과 부적상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Kim[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Lee[29]의 연구결과를 비교했을 때 이는 대학생

활적응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3.4.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진로 정체감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인 지원동기, 전공만족도를 더미변수 처리한 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960-.976으로 모두 .10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IF)는 가장 큰 값이 1.042로 10을 넘는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이 충족되어 독립변수들 사이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검증한 결과

Durbin Watson 지수가 1.713로 나타나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회귀모형은  $F=64.462$ , (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하였고,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2$ )는 .546으로 연구변인들이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54.6% 설명하였다.

독립변인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영향은 학업스트레스( $\beta=.064$ ,  $p<.001$ )는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 $\beta=.330$ ,  $p<.001$ )와 거주형태( $\beta=.189$ ,  $p<.001$ )는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표 4와 같이 확인되었다.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학생일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생활적응도 높다는 결과는 선행연구[26,28,29]와 일치하였는데, 본 연구대상자가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업스트레스, 대인관계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결과와 신뢰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4. 결론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1학년년부터 전공교과목 일부가 시작되다 보니 과중한 학업량과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긴장감은 학생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 특히 이론실습과 임상실습을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사 운영으로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타학과 학생들간의 교류에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 게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를 알아보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 2학년의 학업 스트레스 정도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Oh[25]의 연구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간호대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한 Choi와 Lee[3]의 연구결과 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학년일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새롭게 시작되는 대학생활과 과중한 수업으로 인해 평상시에도 느끼는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 및 긴장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한 연구결과[3]로 저학년에겐 좀 더 적극적인 지지와 학업의 부담감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 결국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Oh[25]와 Lee[26]의 연구결과보다 본 연구대상자에서 대인관계가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Oh[25]의 연구는 대학생 전체 학년으로 더 많은 사회적 경험으로 만나는 대상자뿐 아니라 자신과 외부의 갈등을 통해 결정해야 할 상황들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보여진다. 특히 3학년의 경우에는 간호학과 학생은 임상실습을 경험하게 되며 새로운 환경이라는 병원의 특수한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된다. 이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하기전에 타대학 학과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야 하며 대상자의 간호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팀간의 협력에 대한 불안 및 자신감 등 여러 복합적인 결과에 무게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임상실습기관의 관리자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

20대 초반인 이들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학동기 모임 등에도 어려움을 경험한 학생들이다. 또한 비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N=159)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3.755	.250	-	15.012	<.001
Academic Stress	-.631	.064	-.542	-9.916	<.001
Interpersonal relations	.330	.045	.399	7.289	<.001
Residence type	.189	.052	.199	3.668	<.001

Tolerance=.960~.974 ; VIF=1.027~1.042

Durbin Watson=1.713

Adj.  $R^2$  =.546  $F=64.462$   $p<.001$

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간의 서로 만남을 갖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 등 부족으로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진 현실에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고학년이 저학년도 대학생활적응이 유의하게 높다는 선행연구 [27,28]의 결과를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낮은 학생일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은 선행연구 [26,28,29]와 일치하지만, 본 연구 대상자의 제한점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접근을 통해 대학생활적응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References

1. S. Katz, C. L. Somers,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predictors of college adjustment: Prevention and intervention", *Current Psychology*, Vol.36, No.1, 56-65, (2017).
2. M. R. Lee, M. J. Kim,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6, pp. 197-208, (2018).
3. H. J. Choi, E. J. Lee,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9, No.2, pp. 261-268, (2022).
4.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pp. 14-23, (2010).
5. J. H. Kim, S. B. Kim, I. K. Jung,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the school adjustment in Korea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5, No.4, pp. 241-269, (2014).
6. H. E. Seo, H.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in a non-face-to-face learning environment during COVID-19: Links to the mediating effect of college life adapt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7, pp. 41-51, (2022).
7. M. Y. Kim,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10, pp. 294-302, (2022).
8. K. H. Kim, E. S. Kim,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steem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4, No.3, pp. 1519-1533, (2012).
9. W. K. Lee, "The relations between perfectionism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roles of internalized shame and interpersonal problems", *Korean Journal of Collegian Counseling & Research*, Vol.17, No.2, pp. 74-90, (2011).
10. E. K. Byun, Y. J. Kim, "Effect of perceived stress and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8, No.3, pp. 521-528, (2022).
11. M. H. Lim,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18, No.3, pp. 35-43, (2020).
12. Y. M. Sun, K. H. Chung, "Effect of nurses' compassion competence on personal relations, job satisfaction and

- happines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9, pp. 489-500, (2018).
13. Ministry of Education, “Guidance on school administration measures due to the upgrade of social distancing steps”, Ministry of Education(12.07.2020), (2020). <https://www.moe.go.kr/main.do?s=moe>
  14. Y. H. Choi, M. J. Chae,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8, pp. 419-432, (2018).
  15. H. J. Kim, “Path analysi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self-directed learning, and institutional commitment to impac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29, No.1, pp. 40-50, (2017).
  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announcement of the “COVID-19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for the first quarter of 202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5.6.202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
  17. E. S. Shin,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who took blended learning o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2, No.10, pp. 392-403, (2022).
  18. E. N. Ryoo, J. O. Kim, H. M. Hwang, “The influence of anxiety, depression, and learning satisfaction due to COVID-19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16, pp. 475-485, (2022).
  19. J. E. Choi,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overus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10, No.1, pp. 49-59, (2022).
  20. M. H. Oh, S. M. Chun, “Analysis of academic stressors and symptoms of juveniles and effects of meditation training on academic stress reduction”, *Student Counseling Center of Sogang University*, Vol.15, No.79, pp. 63-96, (1994).
  21. S. M. Moon, “A study on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raining group counseling”, *Kungsang National University Journal*, 19, pp. 195-204, (1980).
  22. S. K. Cheon, “The study on effects of social skills training for schizophrenia patients' rehabilit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1994).
  23. R. W. Baker, B. Siryk, “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9).
  24. Y. J. Lee,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0).
  25. M. H. Oh,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cademic stress on college life adapt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epartment of Welfar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Daegu Haany University Gyeongbuk Korea, (2021).
  26. Y. K. Yang, K. S. Kuem, H. B. Moon, H. Y.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2, No.1, pp. 23-33, (2014).
  27. M. K. Lee, S. H. Lim,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burnout, stress coping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6), pp.

- 521-534, (2017).
28. K. H. Yoo, "A study on th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4, No.3, pp. 269-278, (2018).
29. H. K. Lee,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16. No.1, pp. 11-20, (2012).